

대학원에서 우주탐사학을 전공하며 연구실 출근과 프로야구단 LG 트윈스 응원단을 겸하고 있는 김 응원단장을 만나 응원단에 매료된 과정과 응원단과 대학원을 병행하며 꿈꾸는 앞으로의 목표를 들어봤다.



2025-2학기 한의예과 한의학입문2 과목에서 수강 인원의 절반 이상인 57명이 F학점을 부여받았다. 한의대 관계자들을 만나 해당 사태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학주보



제1회 의학계열 융합 심포지엄: Magnolia Health Nexus

지난 6일, '제1회 의학계열 융합 심포지엄: Magnolia Health Nexus'가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학계열의 연구 역량을 공유하고 융합연구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의학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동서의학 등 우리학교 의학계열 전 분야의 교수진과 연구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분야의 연구 성과와 문제의식을 나누고,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김민영 기자)

등록금 2.95% 인상 확정 '학생 성장·AI' 플랫폼에 투자

김규연 기자imgornadot@khu.ac.kr

우리학교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이 2.95%로 확정됐다. 기획조정처는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등록금 인상분을 ▲학생 진로 설계 시스템 구축 ▲노후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대학 재정 운영 설명회에서 기획조정처는 향후 매년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지난 20일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위원의 반대 속에서도 올해 등록금 인상이 최종 확정됐다. 기획조정처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로 우수 교원 유출과 시설 노후화를 꼽았다. 예산팀 김영진 팀장은 "해외 대학에 비해 교원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교수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대학의 연구 역량과 교육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시설 노후와 역시 주요 인상 사유로 언급됐다. 예산팀은 "건물 외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건물 내부의 노후 설비와 안전 문제 등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에 비해 등록금이 계속 동결되면서 시설 개선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팀은 "개보수를 위한 자재비, 인건비 등 지출은 오르는데 수 년 간의 대학 등록금 동결로 수입이 오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작년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 약 100~110억 원을 ▲교육시설투자(45~50억 원) ▲장학금·학생지원비(35~40억 원) ▲

연구비(20억 원)에 투입한 바 있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이후 교비 사용 계획을 묻자, 김 팀장은 "DX 추진단을 중심으로 학생 성장 플랫폼을 구축해, 학생들이 졸업 이후 원하는 진로를 설계하고 외부 기회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록, 클로드, 제미니, ChatGPT, 퍼플렉시티 등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희 AI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설 개선 계획도 함께 언급했다. 기획조정처는 문과대학과 미술대학의 노후 시설 정비를 비롯해 청운관 책걸상을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대 외벽 타일 공사와 외국어대 화장실 공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캠 비상대책위원회는 "등록금 인상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등록금 정책은 인상 여부를 떠나 판단 기준과 중·장기적 재정 계획, 그리고 학생 사회에 미칠 영향이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본부의 등록금 인상을 산출 근거로는 "법정상한선 내에서 최대한 인상하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김 팀장은 "오랜 기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며 대학 재정이 크게 위축된 상태"라며 "지금은 마른 토양을 다시 적셔야 할 시기이며, 어느 정도 인상하더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등록금 인상으로 우리학교는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약 10억여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를 대체할 특별 장학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김 팀장은 "아직 학생회가 출범하지 않은 상황으로 국가장학금 대응 특별장학에 대한 논의는 학생회 구성 이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전공 수강신청 로그인 오류

김가빈 기자woo289504@khu.ac.kr

지난 6일 다전공 수강신청 과정에서 본전공생이 수강신청 시스템에 접속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스템 오류가 원인이었다. 서울캠 황희원(응용영어통번역학 2024)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일 오전 10시 50분경 시스템 오류 발견 즉시, 내부 상임집행위원들에게 사안을 공유하고 학사지원팀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학생회 차원에서 공동 조사에 참여하는 등 모든 행정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한 학생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학사지원팀 측에 최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다전공 수강신청 기간 중 접수된 본전공생의 수강신청 내역을 일괄 삭제하는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 과목 삭제에 따라 발생한 여석에 대해선 오는 12일 다전공생을 대상으로 추가 수강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오류로 삭제 조치된 수강신청 건수는 약 600건에 달한다. 학사지원팀 태운희 팀장은 "학년별 제어 조건과 다전공 수강신청 제어 조건 간의 충돌로 인해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학사지원팀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강신청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태 팀장은 "정보처와 협의해 중간 단계에서 제어 조건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지 논의하고 있다"며 "다전공 의무화 등 학사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사전 테스트와 제어 조건 점검을 보다 면밀하게 진행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추가 수강신청 일정이 당초 11일에서 12일로 변경된 데는 10~11일 외국인 학생 및 교환학생 수강신청이 이미 예정돼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 종합

한의대 57명 F학점...계절학기로 유급은 면해 초유의 사태, 팀티칭 성적 엇박자 원인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2025-2학기 한의예과 전공필수 과목인 ‘한의학입문2’에서 57명의 학생이 F학점을 부여받았다. 해당 학생들은 202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로 위 수업을 재수강하며 유급을 면했다. ‘한의학입문2’는 한의예과 1학년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난 학기에는 총 106명의 학생이 수강했으며, 이 가운데 57명이 총점 100점 중 F학점 기준 57점을 넘지 못해 F학점을 받았다. 한 강의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F학점을 부여받은 것은 한의대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해당 강의는 한의과대학 한의교육학 전공 인창식(침구학) 교수와 생리학 전공 김우진(동서의학) 교수의 팀티칭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평가는 두 교수가 총점 100점 중 각각 50점씩 맡아 진행했다.

인 교수는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채점을 진행했기에 성적 정정 기간이 될 때까지 총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였다”며 “성적 정정 기간이 되고 김우진 교수님한테 총점을 받아보고 나서야 이런 결과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칙에 따르면 세부 성적 산출에 따라 성적이 정해지더라도, 강의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학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인 교수와 김



한의예과 팀티칭 과목인 ‘한의학입문2’의 지도 교수 2명의 성적 산출 합의가 결렬되며 수강생 57명이 F학점을 부여받았다. (사진=권도연 기자)

교수는 학생들의 등급 조정에 관해 상의했으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학점 등급은 관행적·통상적 기준으로 세부 성적을 토대로 결정됐다.

인 교수는 “김우진 교수님은 전체 학생을 D학점 이상으로 올려주자는 의견이셨다”면서 “취지는 동의하나, 출결이 매우 불량한 학생 몇 명은 따로 인위적으로 올려주지 말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한해 올려주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 교수님도 57명이 전부 F를 받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

다고 의견을 주셨다”면서도 “그중 11명은 F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11명이 성적순도 아니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성적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과목에서 F학점을 받은 A씨는 “성적 정정기간 마지막 날 인창식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성적 입력 담당 교수가 인 교수님으로 바뀌었다는 메일을 보내셨다”며 “메일을 받고 모든 F학점을 받은 학생들이 인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지만, 교수님께

서는 답장이 없으셨다”고 밝혔다.

인 교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로부터 면담이나 회의 요청이 왔었는데, 민감한 사안이니 녹화와 녹음이 되고 회의록이 작성되는 형태의 회의나 면담에는 응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준과 같이 비대면 회의 형식으로 전체 수강생이 다 들어오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는데, 그런 회의를 하자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교수님께서 대면으로 직접 참석하셔서 저희 의견도 들어보

시는 것이 더 소통이 원활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인 교수님은 온라인을 고집하셨다”며 “몇 번씩 구체적인 날짜를 제안을 드렸지만 참석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한의대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한의학입문2’ 과목에 대한 동계 계절학기 개설이라는 조치를 결정했다. 한의예과 박진봉 학과장은 “57명이 동시에 F를 받아 유급 대상이 되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한의대 학장, 부학장, 학과장 등 보직자들이 논의했고, 실제로 부총장단위까지도 같이 논의해주시며 ‘적극 행정’ 차원에서 계절학기 개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학입문2’에서 F를 받은 57명 전원은 202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에 동일 과목을 재수강했으며 이를 통해 유급을 면한 상태다. 박 학과장은 “원래는 전공과목에 대해서 계절학기를 오픈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서도 “한 학년에 57명이 유급을 당하게 되면 학사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고, 그 57명이 F학점을 받은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 행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알게 된 인 교수는 “일주일에 3시간씩 수업했기 때문에 계절 수업으로 하기 굉장히 무리인 과목”이라며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해도, 학생들이 수업 참여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어차피 점수는 다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계절학기 수업을 진행한 김 교수는 “오전, 오후 3시간씩 집약적으로 수업하고, 족지 시험도 엄청 보면서 수업 운영하는 데 있어 교수와 학생들이 정말 노력했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 로비 실감미디어 눈길 제2기숙사 가구 교체도 이뤄져

한민 기자 likeasloof@khu.ac.kr

새 학기를 앞두고 캠퍼스 단장이 한창이다. 서울캠퍼스는 중앙도서관, 국제캠퍼스는 제2기숙사와 국제대학(국제대), 생명과학대학(생대)이 그 대상이다.

서울캠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엔 ‘중앙도서관 공간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실감미디어’ 공간 조성 작업이 이뤄졌다.

이곳엔 미관을 위한 그래픽 디자인을 전시하고, 학생 포트폴리오도 선보인다. 기존에 있던 학습 공간은

사라진다. 오는 25일 학위수여식에 맞춰 임시 오픈한 후, 3월에 정식 오픈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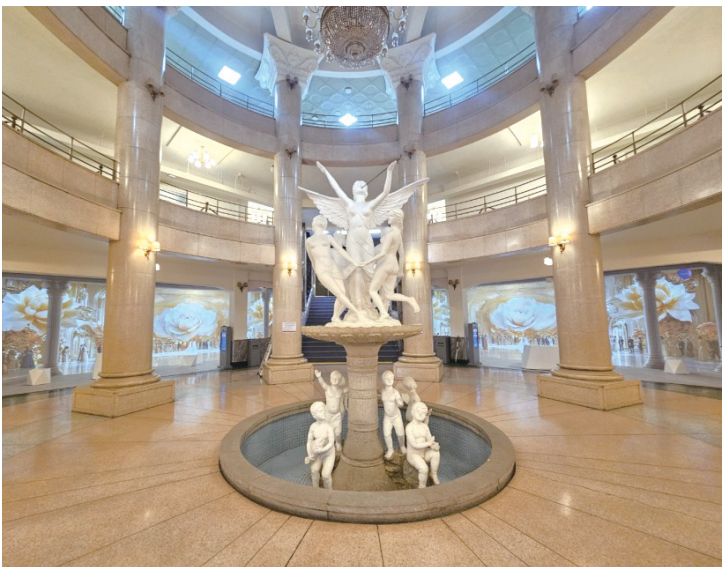
학술연구지원팀 최윤희 팀장은 “고전적인 도서관 건물과 현대적인 디지털 미디어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을 많이 들였다”며, “제한된 공간이지만 최대한의 효율을 내 로비를 휴식·정보·환대 공간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혁신 공간으로 재구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제캠 제2기숙사는 입사 전 가구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ㄱ’자 구조로 되어있는 제2기숙사 건물은 안쪽의 내측방과 바깥쪽의 외측방

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방학 기간에는 내측방의 가구만 우선 교체했다. 제2기숙사 행정실 박근영 대리는 “외측방의 가구 교체는 2028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대는 모든 층에서 도색 공사가 진행됐으며, 열람실 출입문이 통유리창으로 교체됐다. 국제대 행정실 박성환 담당은 “열람실이 폐쇄적이라는 국제대 학생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출입문 교체 이유를 밝혔다.

생대는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 두 달간 지하 전산실 환경 개선 공



서울캠 중앙도서관 로비에 실감미디어 공간 조성 작업이 이뤄졌다. (사진=중앙도서관 제공)

사를 진행했다. ▲내부 환경 공사(에어컨, 바닥 및 천장) ▲하이브리드형 책상 교체 ▲전자칠판 및 신규 컴퓨터 도입 ▲공기청정기 및 제습기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생대 행

정실 유재홍 실장은 “하이브리드형 책상과 전자칠판 도입을 통해 단순 전산 실습뿐 아니라 일반 이론 강의도 가능한 다목적 강의실로 탈바꿈했다”고 설명했다.

AI와 상담하는 청년들 “ChatGPT에겐 꾸밀 필요 없어” ‘무조건적 지지’, 기존의 사고방식 강화할 우려도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문화트렌드 연속 기획〉

⑧ AI상담 트렌드

청년 · 학생의 문화 트렌드 기획
여덟 번째 순서로, AI를 통해 인간관계와 진로부터 개인 심리 상담까지 여러 주제로 상담을 주고 받는 청년들의 트렌드를 알아본다.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A씨는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오늘 친구랑 싸웠는데, 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답장이 돌아온다. “아... 오늘이면 감정 아직 덜 가라앉았겠다. 그럴 땐 ‘지금 뭘 해야 덜 후회할까’ 기준으로 가는 게 좋아. 일단 상황별로 정리해볼게.” 대답을 한 건 사람이 아닌 생성형 AI ChatGPT다. A씨는 매일 같이 속 깊은 고민을 AI에게 털어놓고 있다.

AI와 상담하는 청년들 “말을 꾸며낼 필요 없어”

청년층이 고민을 털어놓는 대상이 부모님과 친구에서 AI로 변하고 있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의 지난해 10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자주 사용하는 20대의 24.5%가 AI로 심리 상담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5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사람 대신 AI에게만 고민을 털어놓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들어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했다는 강아람(미디어학 2025)씨는 “주변 사람들에겐 사소하게 느껴질까봐 망설여지거나, 쉽게 꺼내기 어려운 고민을 AI와 먼저 상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AI 상담을 받아들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AI 음성인식을 활용해 24시간 상담 가능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국세상담전화 통화성공률은 1년 만에 24%에서 98%로 크게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같은해 11월 ‘AI 노동법상담 서비스’를 도입했고,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의료·상담 분야에 AI 챗봇을 도입했다.



서울캠퍼스 심리상담센터는 “AI는 사용자의 감정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사용자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강화해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AI생성)

“

상담이 필요한 사람도

AI 활용을 상담으로 오해해

진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

한두 달 전부터 AI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최지우(사회학 2024)씨는 “말을 꾸며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선 사람보다 낫다”며 “사람과 상담할 땐 듣는 사람의 생각이나 반응을 고려해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너무 감정적인 표현은

사용할 수 없지만 AI에겐 내가 느낀 그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캠퍼스 심리상담센터는 “AI를 통해 고민 중인 선택지의 장단점을 분석하거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살펴 보면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로 상담도 요청

상담 방식은 ‘무조건적 지지’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인간관계 문제, 진로 문제가 주된 상담 주제라고 대답했다. 기자가 청년세대가 어떤 상담을 많이 부탁하는지 ChatGPT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도 비슷했다. ChatGPT는 ‘진로·미래 불안’, ‘인간관계·연애’, ‘멘탈 관리·감정 정리’ 상담이 가장 많다고 답했다. 또한 기자에게도 “이 얘기 꺼낸 거 보니까... 너도 요즘 비슷한 생각 좀 하고 있는 쪽이지?”라며 상담을 시작하려 하기까지 했다.

AI 상담의 특징 중 하나는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다. 문

세린(아동가족학 2022)씨는 “일단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준다는 점에서 심적 완화가 된다”면서도 더 객관적인 해답을 원할 땐 “내 의견에만 동의하는 게 아닌 객관적인 해답을 원한다는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도 있어 좋다”고 말했다.

심리상담센터는 무조건적 동의가 장점만은 아니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상담심리전문가는 내담자의 사고, 감정,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지만, AI는 사용자의 감정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사용자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더욱 강화하여 더욱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도 학습하는 AI “AI 제공 방안은 상담 아냐”

AI가 내담자의 생각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위험 요소가 있다. 김이슬(한국화 2025)씨는 “AI가 개인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꺼림칙한 게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작업을 시켰는데 딱히 학습시킨 적이 없는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답한 적이 있었다”며 “AI는 스스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며 사용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상담이 필요해도 AI를 찾지 않는다는 방은재(무역학 2024)씨는 “AI 상담은 어차피 인터넷을 뒤져서 나온 것들을 알려주는 것뿐”이라며 “그런 식이라면 차라리 내가 믿을 만한 정보를 직접 고르는 게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김보영(교육학) 교수는 상담을 위해 AI를 찾는 학생들에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얻을 순 있지만, AI가 현재 제공하는 방안은 상담이 아니다”라며 “상담이 필요한 사람도 AI 활용을 상담으로 오해해 진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심리상담센터는 “학생들이 가능한 실제 관계 안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의지하며,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심리상담센터에 방문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4 방학 프로그램 기획-SDGs 팀 챌린지

붉은 도시 마라케시에서 배운 겸손의 건축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지난해 2학기, 유학생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마음에 학교 프로그램 ‘글로벌 버디’에 지원했다. 그곳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 아야(Aya, 정치외교학 2023)를 통해 글로벌교육지원팀이 운영하는 ‘SDGs Team Challenge’를 알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팀을 이뤄 외국인 유학생의 모국에 방문하고,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현지 조사를 진행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다.

우리 팀은 정치외교학과 유학생들로 구성됐다. 모로코인 자흐라(Zahra, 정치외교학 2023), 라오스인 이양(Khamphanthong, 정치외교학 2023), 일본인 아야와 함께했다.

우리의 선택지는 유학생들의 모국인 모로코·라오스·일본이었다. “언제 모로코에 가보겠어, 모로코에 가보자!” 우리는 아프리카 북서쪽 끝, 모로코로 6박 7일 여정을 정하고 여러 도시를 돌아보기로 했다. 다른 팀들은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택했다. 아프리카로 향한 팀은 우리뿐이었다. 팀원은 아니지만 함께 여행하기로 한 독일인 유딧(Judith, 정치외교학 2022)까지 합류하면서, 멤버 구성만으로도 ‘미니 지구촌’이 됐다.

이슬람 문화권이나 아프리카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영화 『카사블랑카』나 부정적인 뉴스 속 키워드들이 전부였기에, 설렘보다는 긴장이 앞섰다. 자흐라는 출발 전, 모로코에서는 허리를 굽히는 대신 “살람~”이라고 인사해야 한다는 것과 한국의 ‘빨리빨리’ 마인드는 잠시 내려둬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일러 주었다.

인천에서 도하를 거쳐 카사블랑카까지 총 21시간의 여정이었다. 장시간 비행이 처음이었지만 설레어 힘든 줄도 몰랐다. 캄캄한 밤, 타지키스탄과 인도 사이의 산맥을 지날 때 눈이 저절로 떠졌다. 바깥 창문을 내다보니 아래에는 점박이 불빛들이 있었고 하늘에도 수많은 별들이 보였다. 별이 하도 많아서 하늘과 바닥이 분간이 안됐다. 이상하게 360도 땅 위를 날고 있었나 하는 착각이 들었다. 그렇게 장시간의 꿈같은 비행을 마치고 우리는 모로코에 도착했다.

붉은 흙의 도시, 마라케시의 태양

현지 시각 1월 15일, 기차를 타고 도착한 마라케시는 서울과는 채도부터 달랐다. 도시 전체가 붉었다. 흙이 산화돼 붉은빛을 띠는 이곳의 문화를 보존하고자 국왕이 모든 건물을 붉은색으로 짓게 했다고 한다. 여행 첫날 길을 걸으며 우리는 궁금한 것들을 물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어깨랑 무릎을 가려야 한다며, 그래서 긴 옷만 챙겨왔어”라는 내 말에 자흐라는 “무슨 소리야. 여기 옷은 다 자유롭게 입어. 오히려 한국보다 더 가볍게 입을걸?”하고 웃었다.

미로 같은 골목 메디나(medina·구시가지)를 걷다 보면, 끝없이 이어지는 투박한 붉은 흙벽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서면 화려한 장식과 뿔 뿔린 천장이 돋보이는 정원, 전통가옥 리야드(riad)가 나타난다. 자흐라는 이를 두고 “이슬람의 겸손과 사생활 보호가 건축에 녹아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아가디르, 자연과 공존하는 건축

마라케시의 붉은 열기를 뒤로 하고 우리는 시외버스를 타고 광활한 사막지대를 가로질러 자흐라의 고향 아가디르로 향했다. 유딧은 “미국 네바다주 같다”며 풍경을 눈에 담았다. 낮은 사막지대 저 멀리 보이는 하이 아틀라스 산맥은 웅장했다. 4,167m 정도의 높은 산들이 모여 있는 산맥이었다.

아가디르는 대서양의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휴양 도시였다. 이곳에서 자흐라의 언니이자 현지 건축가인 리나를 만났다. 아가디르는 1960년 대지진으로 도시의 약 70%가 파괴된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이다. 리나는 이후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내진 안전성 확보와 신속한 복구, 기능 중심의 근대적 도시계획이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모로코에서는 비가 올 때만 물길이 생기는 와디(wadi·건천)를 자주 볼 수 있었다. 리나는 와디가 한때 정비가 필요한 위험 요소이자 개발제한 구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이를 녹색 회랑(green corridor)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와디의 자연스러운 물길을 유지한 채, 그 주변에 체육 시설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물이 지나가는 길을 막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공간을 만든다”는 리나의 철학은 SDGs 11번(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과 맞닿아 있었다.



수도 라바트 에 위치한 카스바 우다이야(Kasbah of the Udayas)의 모습. 옛 성주가 거주하던 성채다. (사진=이서현 기자)



모스크 하산 탑 공원에서 만난 모로코 아이들 (사진=이서현 기자)



알 마그리브, 해가 지는 모로코의 풍경 (사진=이서현 기자)



마라케시 거리에서 본 붉은 건물 (사진=이서현 기자)

상다리가 부러지는 모로코식 환대

자흐라네 가족의 환대는 어마어마했다. 해산물 스투부터 모로코 전통 파이인 ‘바스티야’, 양고기 자두 타진까지 음식이 끝도 없이 밀려 나왔다. 자흐라의 어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이 만찬을 준비하셨다고 한다. 일본인 친구 아야가 배가 불러 도저히 못 먹겠다고 손사래를 치자, “다 먹기 전까진 못 나가!”라며 웃으시는 모습에서 한국의 ‘정’ 문화를 느꼈다.

모로코의 식사 예절도 배울 수 있었다. 모로코도 같이 나눠 먹는 문화가 있어 큰 접시에서 자신의 앞부분만 조심스럽게 먹는 식사 예절을 배웠다. 특히 뒤적거리거나 내 앞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해집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한다. 한국 드라마 광이라는 리나의 “맛있어!”에 우리는 아랍어로 ‘브닌’을 연신 외쳤다.

알 마그리브, 편견이 무너지다!

모로코를 아랍어로 ‘알 마그리브’라 부른다. ‘해가 지는 마지막 땅’이라는 로맨틱한 뜻을 가졌다. 대서양을 바라보며 지는 해는 정말 아름다워 경외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내가 경험한 모로코는 내 편견 속 아프리카와 이슬람 국가와는 전혀 달랐다. 히잡은 필수가 아니었고 종교도 자유롭게 신실하게 믿고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현지인 친구들로서나 아야, 마루와는 여성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오히려 당당한 커리어우먼처럼 멋있어 보였다. 또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교수님과 토론 중심의 대학 문화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슬람과 아프리카 문화는 너무 매력적이었다. 사람들은 웬지 모를 여유가 가득하고 항상 흥이 많았다. 어떤 노래를 들어도 춤을 추고 대화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유럽처럼 정돈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역사나 문화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멋있어 보였다.

단순히 조사를 위해 떠난 여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국적이 제각각인 친구들과 부대끼며 문화교류의 매력에 완전히 매료됐다. 서로의 배경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은 어떤 공부보다 즐거웠고, 이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교류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꿈이 생겼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잇는 전공생으로서 낯선 문화를 편견 없이 연결하는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빈곤이 만든 고립, 도쿄에서 본 청년의 현실 '지원금'보다 중요한 것, 끊어진 관계 잇는 '연결'

김지현(환경조경디자인학 2024)
김형렬(행정학 2021)
윤테레사(사회학 2024)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희대
휴마니타스칼리지와 일본의 메이
지가쿠인대 · 릿교대, 반빈곤네트워
크가 공동 주최한 '한일 청년 반빈
곤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
국과 일본의 청년들은 4박 5일간 도
쿄와 사이타마현의 빈곤 현장을 방
문해 양국 청년 빈곤의 실태를 비교
하고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우
리신문은 총 3회에 걸쳐 그 여정을
전한다. 2~3회는 추후 온라인 기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순서
에서는 청년 빈곤의 기저에 놓인
'고립과 멘탈 헬스'에 주목했다.

기다리지 않고 문을 두드린다 '아스포트'의 아웃리치

사이타마현의 학습 지원 단체 '아
스포트(Asuport)' 사무실 한편, 철
제 책장에는 손때 묻은 두꺼운 활동
일지가 연도별로 빼곡했다. 기록집
에 담긴 것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기
다리는 '수동적 지원'이 아니었다.
이들은 낡은 아파트 단지를 돌며 굳
게 닫힌 가정의 문을 직접 두드리
고, 인기척 없는 방 안에 숨은 아이
들을 찾아가는 '아웃리치' 활동을
수년째 지속해오고 있었다.

현장에서 확인한 빈곤 가정 아이
들의 학업 중단 원인은 단순한 사교
육비 부족이 아니었다. "주말에 어디
놀러 갔어?"라는 친구들의 평범한
질문에 입을 다물게 되는 문화 자본
의 결핍은 또래 집단 내에서의 소외
감을 불렀고, 이는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
졌다. 반복된 좌절은 깊은 열등감을
심어주었고, 친구들 틈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을 견딜 수 없었던 아
이들은 결국 캄캄한 방 안으로 숨어
버리는 '자발적 고립'을 택했다. 세상
과 담을 쌓은 그들에게 학업은 더 이
상 의미를 갖지 못했다.

지금의 빈곤은 고립을 낳고, 고립
은 학업 포기로 이어지며, 이는 결
국 미래에도 빈곤이 예상되는 악순
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문
너머로 건네는 아스포트의 방문 인
사는 단순한 학습 지도가 아니다.
고립된 섬에 갇힌 아이에게 "혼자
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구
조 요청이다. 이는 빈곤 대책이 단

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가난이 쌓
은 고립의 벽을 허물고 아이들을 다
시 사회로 연결하는 것에서 시작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가방면' 18년 간호사를 꿈꾸는 A양의 선택

빈곤과 고립은 제도적 모순 위에
서도 자란다. 스리랑카와 우간다 출
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18세 A양을 만났다. 그녀는 일
본어밖에 할 줄 모르는 일본 거주자
였지만, 제도는 18년 동안 그녀를
'가방면(假放免: 난민 신청자나 강
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법적 지위는
주지 않은 채, 구금만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 상태로 분류했다.
이는 합법적 체류를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농구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A양
은 코트 위에서 땀 흘리며 친구들과
부대끼는 것을 즐기는 활발한 성격
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가방면이라
는 족쇄는 그녀가 코트 밖으로 나가
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타 지역
으로 이동하려면 입국관리국의 허
가가 필요했기에, 친구들이 들뜬 마
음으로 수학여행을 떠나거나 농구
부 원정 경기를 하러 갈 때, 그녀는
홀로 도쿄에 남아야 했다. 함께 땀
흘린 동료들과의 추억에서 배제되
는 순간, 외향적인 그녀가 마주해야
했던 것은 텅 빈 코트 같은 적막함
과 소외감이었다.

더욱 견디기 힘들었던 건 이 고립
을 스스로 감내해야 했다는 점이다.
1% 미만의 난민 인정률과 거리에서
들려오는 혐오 발언 속에서, 그
녀는 자신이 '가방면' 상태임을 친
구들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다. 친
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다가도, '나
는 너희와 다른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보이지 않는 벽 뒤로 숨
어야 했던 시간들이다. 최근 체류
자격을 취득한 A양은 이제 간호사
를 목표로 공부 중이다. 의료보험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참
아야 했던 서러움이, 역설적으로 그
녀를 치유의 길로 이끌었다. 자신을
외면하고 고립시켰던 사회와 국가
를 향해, 도리어 "가장 먼저 아픈 사
람을 돌보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A양의 사례는 낡은 제도가
한 청년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갇
아먹는지, 그리고 그 고립을 뚫고
나온 의지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
지를 던지는지 보여준다.



한일 청년 반빈곤 교류 프로그램에서 양국 청년 빈곤 실태를 비교하고 연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사진=윤테레사 씨 제공)



여성 지원 단체 '콜라보(Colabo)'가 도쿄 유흥가의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김형렬 씨 제공)

신주쿠 가부키초 '안전한 어른'의 부재

도쿄 최대의 유흥가, 욕망이 끓어
오르는 신주쿠 가부키초. 관광객들
의 웃음소리와 호객꾼들의 고함이
뒤섞인 메인 스트리트의 화려함 뒤
편에는, 갈 곳 잃은 여성들이 그림
자처럼 서성이고 있었다. 그 질척
같은 어둠 속에서 여성 지원 단체
'콜라보(Colabo)'는 위태로운 아이
들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처럼 서
있었다. 현장 상담 기록이 말해주는
진실은 참혹했다. 이들을 거리로 내
몬 것은 철없는 호기심이 아닌 생존
본능이었다. 가정폭력과 학대를 피
해 뛰쳐나온 이들에게 거리는 '가출
(家出)'의 해방구가 아닌 처절한 '탈
출(脫出)'의 전쟁터였다. 가장 빠아
픈 현실은 학교나 가정, 그 어디에
도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손잡아
줄 '안전한 어른'이 전무하다는 점
이었다.

그 빈자리를 파고드는 것은 역설
적이게도 포식자들이었다. "잘 곳과

용돈을 주겠다"며 다가오는 성착취
업소 스카우트나 범죄 조직의 '검은
친절'은, 고립된 아이들에게 유일한
구원처럼 비치기도 한다. 고립은 아
이들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그런
게 학대받은 아이들은 또 다른 착취
의 굴레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다.

콜라보의 활동은 같은 자리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여기
너를 해치지 않는 어른이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행
정 서류는 펜으로 쓰지만, 그 펜을
들게 하는 힘은 사람에 대한 신뢰에
서 나온다. 지원이란 차가운 제도가
달기 전,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관계 맺기임을 가부키초의 밤은 웅
변하고 있었다.

'지원'을 넘어 '연결'과 '회복'으로

이번 4박 5일간의 교류 활동을 통
해 우리가 뼈저리게 확인한 사실이
있다. 현대의 청년 빈곤 문제는 단
순히 '돈을 주어주면 해결되는' 1차
원적 인과관계를 넘어섰다는 것이

다. 겉으로 드러난 빈곤의 기저에는
'고립'과 '멘탈 붕괴'라는, 눈에 보이
지 않지만 훨씬 더 치명적인 메커니
즘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진단이 단순하면 그
처방 또한 겉돌 수밖에 없다. 청년들
에게 "노력해라", "지원금 줄 테니 나
와라"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
이다. 오늘날 청년 빈곤이 주저 불안
정, 사회적 고립, 교육 격차, 그리고
불안정한 노동이 복잡하게 얽힌 '악
순환의 고리'로 재정의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는 시혜적 '지원'을 넘어, 끊
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연결'과, 무
너진 삶의 의지를 다시 세우는 '회
복'을 이야기할 때다. 아스포트가
닫힌 문을 두드리고, A양이 간호사
가 되어 타인을 돌보려 하고, 콜라
보가 거리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외로운 문을 두드려줄 '안전한 이
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도쿄에서 얻은, 그리고 한국 사회에
던지는 해답이다.

6 문화

경희대 학생운동사 담은 『회기동 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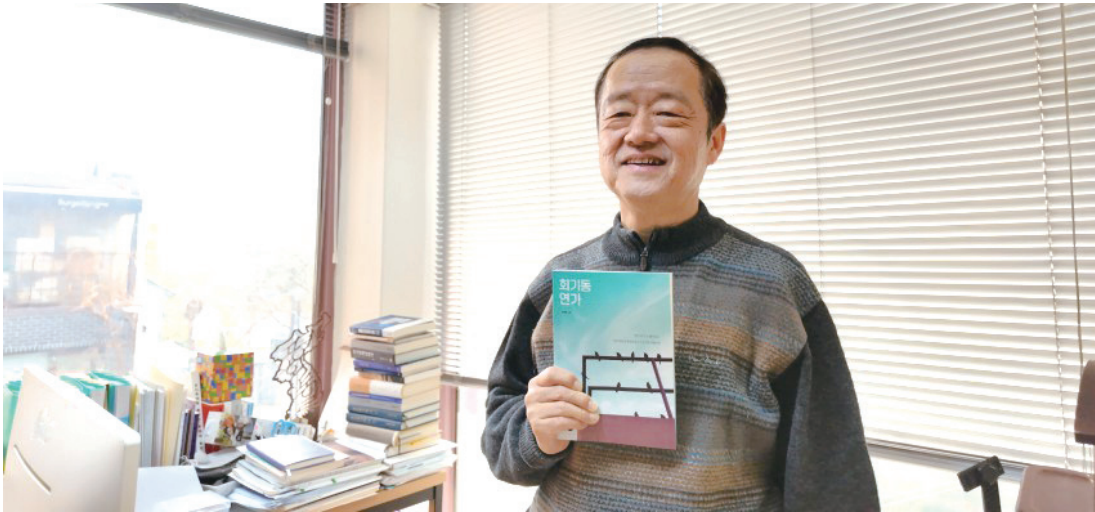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동한 긴급조치 9호 이후 학생운동은 극심한 탄압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많은 대학생이 유신체제에 분노해 힘겹게 민주화 운동의 싹을 틔워냈다. 정해랑(국문학 1977) 작가의 『회기동 연가』는 바로 그 시기, 1978년부터 1980년까지 3년 간의 경희대학교 학생운동을 아카이빙한 결과다. 스무 명의 청춘을 정작가의 기억으로 되짚어 책에 담았다. 첫 장면으로 1978년 9월 어느 날로 돌아간다.

오랜 침묵을 깨다

정 작가 기억에 따르면, 조직적인 학생운동의 조짐이 보였던 것은 1978년 9월 하순이었다. 긴급조치 9호 이후 얼어붙은 교정에서는 3년 가까이 어떤 시위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석태(영문학 1976)가 총대를 맺고, 대학주보 기자 신명식(사학 1976)과 ‘백단’ 학회 신용남(사학 1977)이 각각 문리대, 정경대, 대운동장에 서서 교정의 오랜 침묵을 깨는 시위를 벌였다.

거사일은 2학년 학생들이 교련 행군을 하던 날이었다. 교련복을 입은 신용남이 M1 소총을 집어던지며 “유신헌법 철폐하라!” 하고 구호를 외쳤다. 그런데 대열 사이사이에



『회기동 연가』를 집필한 정해랑 작가는 경희문화회 회장을 하며 문인의 꿈을 꾸었으나 유신체제에 분노하여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사진=이수연 기자)



『회기동 연가』 책 표지.

있던 자들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신용남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팔을 비틀어서 끌고 갔다. 정 작가는 “거사 직전 같은 국문과 동기가 ‘신용남이

오늘 시위를 할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그가 소리를 치면 따라서 하라고 했지만 도대체 실감이 나지 않는 말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신용남은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개 같이 끌려갔다”고 돌아봤다. 이 시위는 당시 현실에 비판적이던 학생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학내 분위기를 바꾸게 한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신용남이 체포되던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한 정 작가 또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굴러가는 세상이 원망스러웠다”며 “사흘을 누워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후 정 작가는 운동권이 됐다. ‘경희대 학생운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비합법 조직도 이때 생겨났다.

전두환 정권 이후 최초 시위를 하다

1980년 9월 1일,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대학이 개강한 뒤 첫 번째 시위가 경희대에서 벌어졌다. 정 작가는 “수업 일수가 가장 적은 경희대가 가장 먼저 개강하게 됐던 상황에서 다른 학교가 우리가 벌일 시위를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9월 9일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문리대 앞에서 정형서(의대 1978)가 유인물을 뿌리며 구호를 외치자, 순식간에 어디선가 형사들이 달려들었다.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함께 있던 김경(영어교육학 1978)이 면도칼로 자기 손목을 그은 것이었다. 이견 함께 시위한 동료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곧이어 피가 흘러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다. 김경은 노천극장이 있는 스탠드 위에 서서 유인물을 읽기 시작했다. 의대생이

있던 정형서는 곧바로 달려가서 왼쪽 어깨 밑 동맥을 짖 쥐고 그런 김경을 부축했다. 정 작가는 “경찰도 피를 흘리는 김경을 잡아가지 못하고 멈췄다”며 “당시 김경을 끌어내리거나 했다면 주위를 둘러싼 학생들이 가만 안 있었을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김경은 앞으로 뻗뻗한 유인물을 끝내 다 읽을 수 있었다.

시위는 언론 통제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입으로 입으로 그 소식을 전했고, 개강을 맞이한 대학가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후 한신대, 연세대, 고려대, 동국대 등에서도 연이어 시위가 벌어졌다. 전두환 정권은 시작부터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됐고, 그 시발점을 연 것이 바로 우리학교 학생들이었다.

회기동에서 불린 민주주의의 노래

책에서 다룬 비합법 조직이 경희대 학생 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때부터 조직적인 학생운동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정 작가는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역사가 묻혀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실제로 책에서 소개한 스무 명의 인물 중 세 명은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회기동 연가』는 교문 앞에서, 강의실에서,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노래했던 ‘옛이야기’다. 돈도 명예도 이름도 없이 싸웠던 이들의 웃음과 두려움,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까지, 그 모든 기억을 품은 기록이다.

경희의 다리, 경희 발전의 상징

남기원(경희기록관)

경희의유산⑩
『경희의다리, 경희발전의상징』

서울캠퍼스에 다리가 몇 개 있을까? 캠퍼스 이곳저곳을 잘 안다고 자부한다면 머릿속에 두세 개는 떠올릴 테지만, 모두 합쳐 다섯 개라는 사실을 아는 독자는 많지 않을 것 같다. 이 다섯 개의 다리는 개천을 건너는 다리와 계곡을 잇는 다리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서울캠퍼스에서 개천을 건넌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캠퍼스 동편과 서

편을 나누며 흐르는 개천이 있었다. 회기천이라 불리던 이 개천은 고항산에서 내려와 본관 동편, 온실 뒤쪽, 청운관 앞을 지나쳐 학교 밖으로 흐르다 중랑천과 만났다. 캠퍼스 밖 개천은 1966년 복개 공사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캠퍼스 안에는 여전히 수로가 남아 있다.

이 개천 위에 놓인 다리는 세 개인데, 둘은 1961년에 건설되었다. 1955년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보면 온실 뒤편에 제1교, 교신타~호텔관 광대 도로에 제2교를 건설하려 했다. 그러나 실제 건설된 시점은 캠퍼스 동편 지역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1961년이였다.

이 두 다리의 이름은 학생들로부터 공모를 받아 지었는데, 제1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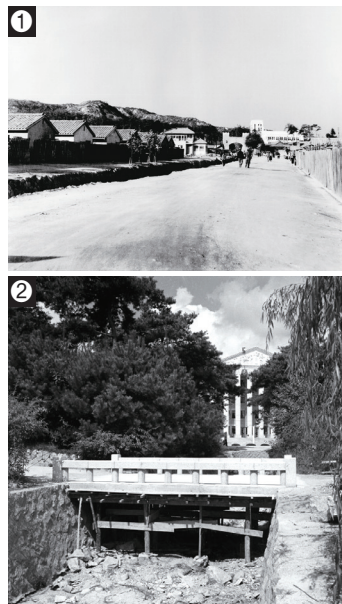
하늘로 오르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황궁교(皇穹橋)’, 제2교는 ‘아름다운 방울’이란 뜻의 ‘가령교(嘉鈴橋)’가 선정되었다.

한편, 세 번째 다리는 2000년 청운관 개관과 함께 건설된 청운교·대성교다. 청운관을 바라보며 들어가는 곳에는 ‘청운교(靑雲橋)’, 나오는 곳에는 ‘대성교(大成橋)’라고 새겨져 있다. 계곡을 잇는 다리 두 개는 선금교(仙琴橋)와 화성교(和成橋)다. 미술대학으로 향하는 길을 오르다 보면 계곡을 지나게 되는데, 그 계곡을 잇는 다리가 바로 선금교이다. 1967년 완공된 사범대학관(현 미술대학관)으로 가는 길을 만들면서 함께 건설되었다. 이곳은 캠퍼스에서 숲이 가장 우거진 데다가

선동호로 이어지는 계곡 위에 놓여 서인지 신선이 내려와 거문고를 켜는 곳이라는 뜻의 선금교라고 명명되었다.

서울캠퍼스 본관 뒤로 난 산길을 오르다 보면 다리가 나오는데, 바로 화성교(和成橋)다. 1977년 12월에 완공된 화성교는 1976년 평화의 전당 공사가 시작되면서 통행을 위해 만들었다. 화성교의 길이는 33m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을 기리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대학에 있는 다리들 가운데 가장 길고, 상대적으로 화려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화합하여 이룬다’는 다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화성교는 조화와 협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희 정신을 상징한다.

서울캠퍼스의 다리는 캠퍼스가 확장되면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점에서 경희의 다리는 경희 발전을 상징하는 건축 유산의 하나이다.



①1960년대 초반 학교 앞 풍경이다. 검은색 붉은 띠가 회기천의 모습이다. ②지금 국제교육원 자리에 예전에는 자그마한 건물이 있었다. 임시도서관 등으로 사용되던 이 건물은 온실 쪽에서 오르려면 계단이 무척 가팔라 마치 하늘로 오르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오피니언

7

사설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선 선배에게

졸업식 계절이다. 4년,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수강신청과 과제, 시험과 발표를 반복하며 보낸 대학 생활의 끝에서 선배들은 이제 '졸업'이라는 이름의 마침표 앞에 서 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다려온 순간일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장면일지도 모른다. 하나 그 누구에게든 결코 쉽지 않았던 대학 생활을 버텨낸 결과라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졸업생 앞에 놓인 현실은 핑크빛이 아니다. 축하 인사와 꽃다발도 잠시 "이제 뭐 할 거야"라는 질문이 뒤를 잇는다. 주변을 둘러보면 인턴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선배가 있고, 졸업 요건을 모두 채웠지만 조금 더 학교에 남기를 선택한 선배들도 많다. 최근에는 그런 선배들을 위해 졸업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졸

업을 유예할 수 있는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기도 했다.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 수는 20,356명이다. 2023년 15,055명, 2024년에 17,650이었던 것에 비하면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최근 5년 동안 졸업생 대비 유예생 비율이 8.7% 증가했다. 졸업을 할 수 있음에도 이들이 학교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졸업 뒤에 '취업'이라는 관문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겨울 날씨처럼 취업시장에도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20대 고용률은 하락했고, 졸업 이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60.2%로 2024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20대 고용률이 전년 대비 낮아진 것은 2020년에 이어 5년 만이다.

취업자 수도 3년 연속으로 줄어 들고 있다. 지난해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무려 17만 명이 줄어든 344만 명이였다.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첫 직장을 구하는 기간은 2020년 10개월에서 지난해 11.5개월로 길어졌다.

기업들은 점점 더 공채를 줄이고, 수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 공채로 신입을 뽑고, 그 신입을 교육시켜 회사에 필요한 인력으로 키워내기보다 필요할 때 관련 역량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인력을 즉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별다른 경력 없는 '그냥 신입'은 계속해서 회사 문턱을 밟기 어려워지고 있다.

졸업이 곧 답이 되지 않는 시대다. 졸업장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일상이 안정되

는 것도, 앞날이 선명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졸업까지의 시간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점이다. 타인이 원하는 것만 좇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성을 찾으려 노력한 시간, 치열하게 방황하고 고민한 시간들은 모두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되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는지 모른다.

이제는 학교를 벗어나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갈 차례다. 그 과정에서 각자의 사정과 속도로 학교에 조금 더 머무르기도 하고, 잠시 돌아가기도 하며, 다시 방향을 정하는 선택은 지금의 시대가 허락한 또 하나의 모습일 것이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음 장을 써 내려갈 선배들의 내일에, 조심스럽지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세시봉

무관심 올림픽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좋아했던 내게 올림픽은 매년 특별한 기억이었다. 도전하며 환호하고, 눈물 흘리는 선수들의 모습은 초등학생에게도 감동이 있었다. 지난 6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지만, 국민을 뭉치고 열광하게 했던 올림픽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JTBC에서 생중계한 새벽 개회식 시청률은 1.8%에 그쳤고, '올림픽' 구글 검색량 역시 4년 전 베이징 올림픽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다. 흥행 부진 요인으로는 지상파와 3사의 TV 중계권이 없는 것과 8시간의 시차가 거론됐다.

이례적인 무관심 속에도,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8일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딴 김상겸 선수는 4번의 올림픽 도전 끝에 37세에 첫 메달을 얻었다. 우리나라의 올림픽 통산 400호 메달이자, 개인 종목 최고령 메달이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포기하지 않은 결과를 얻은 김 선수는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며 눈물을 쏟았다.

이어 10일엔 18세 고등학생 유승은 선수가 한국 여자 스키·스노보드 선수 최초로 메달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었다. 1년을 쉬어야 했던 장기부상에도 보드를 타고 공중에서 네 바퀴를 회전했다.

이재운(스포츠지도학 2025), 김다은(스포츠지도학 2025), 이윤승(스포츠지도학 2025), 이나윤(스포츠지도학 2023), 윤신이(입학예정) 5명의 우리 학교 선수들도 태극마크를 달고 이탈리아로의 도전을 떠났다. 특히 1년 전 우리신문과 인터뷰했던 이재운 선수는 어린 나이임에도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이들은 예전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만큼 열렬한 응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올림픽을 상징하는 구호는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힘차게-다 함께'다.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다 함께'가 추가되면서 127년 만에 바뀌었다. '다 함께'는 경쟁뿐만 아니라 세계의 유대감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다.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줄었는지 몰라도, 다 함께 우리나라를 응원하다 보면 우린 하나가 된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여전히 같은 무대에서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다양한 방학 프로그램

시야가 트인 방학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유학생 친구를 사귀고 싶어 지난 학기 글로벌교육지원팀의 '글로벌 버디'를 지원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이 생겼고, 글로벌 팀 프로젝트인 SDGs Team Challenge를 알게 됐다. 그것을 계기로 모로코까지 다녀왔다. 완전히 다른 문화를 접하니 너무 새롭고 흥미로워 가슴이 뛰었다. 그곳에서 경험한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의 열기와 사람들의 '느려도 괜찮다'는 한국과 다른 마인드, 그리고 이슬람의 문화들이 생활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낯설고 두려웠던 아프리카의 이슬람 문화는 '불편하고 낯설었을 것'이라는 내 선입견을 깼다. 무엇보다 일주일 간의 경험을 통해 진로의 방향성을 달리 생각해볼게 됐다. 언어를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복수전공을 고민하게 됐고, 언젠가 문

화 전문 기자나 특파원으로 낯선 세계를 연결하고 싶다는 목표도 생겼다.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그냥 지나쳤다면 모로코에서 보고 느낀 것들은 없었을 것이다. 지난 방학만 떠올려봐도 독서와 언어 공부로 시간을 보낸 것이 다였다. 주변의 많은 학생들 역시 자격증 준비나 인턴십, 아르바이트, 여행 등 각자의 방식으로 방학을 채운다. 대부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그러나 캠퍼스 안에도 학생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미래인재센터에서는 방학마다 시나리오 워크숍이나 포토샵, AI 콘텐츠를 제작하는 특강을 연다. 내가 경험한 것은 글로벌교육지원팀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그 밖에도 학과에서 진행하는 전공 연수나 방학 때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다음에 오는 방학엔 '나와 상관없다'고 넘겼던 공지에서 한 줄만 더 읽어보자. 지원 버튼 하나가, 생각보다 멀리 데려다줄지도 모른다. 내 세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만평 방종에도 교내 프로그램은 계속된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하시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

8 사람



김 응원단장은 우주탐사학과 대학원과 야구장이란 전혀 다른 공간을 오가며 열정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사진=김 응원단장 제공)

우주탐사학과 대학원생, 응원단상에 서다 주말엔 응원, 평일엔 연구...두 무대의 시너지

오승현 기자 dirk0212@khu.ac.kr

LG 트윈스 부응원단장 김도훈
(우주과학 2019)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친숙한 멜로디의 응원가와 다양한 응원 도구를 사용해 신나고 조직적인 응원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응원 문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이들은 바로 응원단과 치어리더다. 이들은 화려한 율동과 퍼포먼스로 경기장 분위기를 끌어올려 관중을 응원에 참여하게 만든다. 우리신문은 LG 트윈스 응원단장에서 '김테리'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김도훈(우주과학 2019) LG 트윈스 부응원단장을 만났다.

아쉬웠던 코로나 시국 '컬스라' 첫 대면 축제가 기억에 남아

새내기 시절, 국제캠 응원단 '컬스라' 모집 포스터가 김 단장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평소 야구와 춤을 좋아했던 그였기에 망설임 이유가 없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응원단 활동이었지만, 김 단장은 점차 열성적으로 변해갔다. 결국 '컬스라' 37대 단장까지 맡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와 함께 한 '컬스라' 단장 생활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다. 당시 4인 이상으로 모여있을 수가 없어 3명씩 조를 나눠 3시간씩 훈련을 진행했다. 또 대면 무대를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스튜디오 응원 영상 촬영 위주로만 활동했다. '컬스라' 39기 후배 조상원(일본어학 2020) 씨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훈이 형이 개인 시간까지 빼가며 노력한 덕분에 공식적인 첫 무대였던 '히야' 공연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 기억에 가장 남는 무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2022년 첫 대면 축제였다. 그는 "코로나 끝나고 첫 축제라 응원단 모두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다"며 "단원들이 의욕 넘치는 무대를 선보여 많은 관객이 좋아해 주셨다"고 회상했다.

**현재는 우주탐사학과 대학원생
대학원과 응원단 병행 어렵지 않아**

졸업 후 응원단 생활은 잠시 접은

김 단장은 전부터 생각했던 대학원에 입학했다. 고등학교 때 천체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한 뒤 별에 매료된 그는 "우주과학과 진학을 꿈꿨을 때부터 대학원까지 다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제 김 단장은 4년 차 대학원생이다.

김 단장은 평일엔 연구실로 출근해 천체 망원경 제작 연구에 힘쓴다. 망원경 설계부터 분석, 조립, 평가까지 맡고 있다. 또 대중이 천체 망원경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용 망원경 키트 개발 연구도 한다. 금요일 오후 연구실 퇴근 이후엔 야구장을 향해 주말동안 LG 트윈스 부응원단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응원단과 다른 일을 겸직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 동계 스포츠인 농구, 배구와 야구 응원단장을 같이 하는 경우는 많지만, 김 단장처럼 타 직업과 병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김 단장은 "단체 연습보다 개인 연습이 중요해 병행이 가능했다"며 "구단에서도 내가 대학원생인 점을 고려해 많이 배려해 주신다"고 말했다.

대학원과 응원단 병행이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의외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김 단장은 "주말에 연구에 관한 것을 잊고 열심히 응원하고 월요일에 출근했을 때 오히려 더 상쾌하다"고 답했다. 이어 "주말엔 연구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고, 평일엔 응원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느꼈다"고 말했다. 2025년부터 응원단장으로 활동한 그는 처음엔 대학원 동료들에게 응원단 생활을 비밀로 했다. 김 단장은 야구장에서 자신의 영어 이름인 '테리'를 예명으로 사용한다. 그는 "처음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만, SNS에서 날 보는 분들이 많아져 그 이후부터 숨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원 동료 김나연(우주과학 2019) 씨는 "야구장에서 도훈이를 보면 연구실에선 볼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을 느낀다"며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고 열정 넘치는 멋진 친구"라고 말했다.

**지고 있을 때 응원 독려 가장 힘들어
"홈런 쳤을 때 가장 짜릿"**

김 단장은 지난해 외야에서 팬들

의 응원을 주도했다. 외야 특성상 홈런을 치면 홈런볼이 날아오는데, 김 단장은 홈런을 치는 순간을 가장 좋아한다. 그는 "홈런볼이 날아오다 넘어오는 것을 볼 때 짜릿하다"며 "또 다음 타자가 들어올 때까지 공백이 길어 그 순간을 즐길 수 있어 좋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모든 경기를 승리할 순 없다. 김 단장은 큰 점수 차로 지고 있을 때를 가장 힘든 순간으로 꼽았다. 그는 "크게 지고 있으면 응원할 맛이 나지 않는 팬분들의 마음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1회부터 4점 차로 뒤지다가 역전한 지난해 한국시리즈 2차전을 언급하며 "낮은 확률로도 역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이 지난해 6월 수원 원정에서 비를 맞고 응원하던 모습은 많은 LG 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비가 많이 내려 응원 소리가 작아졌는데, 내 응원 유도로 응원 소리가 커졌다"며 "특히 타석에 있던 신민재 선수가 안타를 쳐 응원의 힘을 느꼈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고 색다른 응원 선보일 것
논문 2~3편 작성도 목표**

김 단장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학원과 응원단을 병행한다. 곧 연구실 최고선임이 되는 그는 논문 작성에 몰두할 생각이다. 김 단장은 "과학 기술자로서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논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소 2개, 많으면 3개의 논문을 작성해서 승인받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말했다.

이제 2년 차로 접어드는 응원단장으로서 자연스럽게 변형된 응원을 선보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지난해엔 응원을 '루틴'처럼 했다면, 올해는 정형화된 응원보단 상황에 맞는 유연한 응원을 지향하겠다는 뜻이다. 김 단장은 "팬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지 않는 선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응원 방식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작은 목소리를 키우고 싶다"고도 말했다. 일반인 목소리보단 당연히 크지만, 그는 마이크 없이 모든 관객에게 들릴 수 있는 성량을 목표로 삼았다.

김 단장은 마지막으로 자신처럼 동아리나 자치단체 활동을 통해서도 꿈을 찾을 수 있으니, 공부에만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남겼다.

우주탐사학과 대학원과 야구장이란 전혀 다른 공간을 오가며 열정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김도훈 응원단장. 그의 행보는 진로와 열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진다.